

# 梅毒을 合併한 麻藥中毒者

— 症狀, 治療, 看護 —

이 춘 애

서울시립 서부병원 간호원장

## Introduction

본병원에서 마약환자를 취급한 경험에 의하면 마약남용을 하기전부터 마약중독의 직접등기가된 병인지 마약중독의 직접 등기가된 병은 아니지만 마약남용전부터 가졌던 병인지 또는 마약금단요법 실시후 진신상태가 마약남용 이전상태에 돌아가는 과정속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알수없으나 그 반수이상 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개중에는 마약 남용전부터 있었던 증상의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에 왕왕 좌우하는 예도있다.

우리병원은 특수 병원이란 조건때문에 합병증이 있어도 내과 정신과 이외는 전문의에게 진단 받을수 없으며 과학적 검사를하는 시설도 불충분한 조건하에서 일을 하지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로때문에 간호의 실제면에 있어서 곤란을 느끼는수가 적지않다. 이런 조

건하에서 본원에서는 Medical staff가 합심하여 유기적인 연락과 세밀한 환자에 대한 관찰 진로를 하고 있는 중에 흥미 있는 case를 취급했기 때문에 발표 하려고 한다.

## Social Background & Present Situation

이 환자는 慶南 三千浦에서 漁場과 큰 여관을 경영하는 부유한 가정의 딸 삼형제중 맏딸로 자랐으며 일제시대 여고출신의 지식층 여성이며 무역상을 하고 있는 사람과 15년전에 결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없이 살아왔으며 시가식구들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서 살고 있으며 친정에는 아들이 없으므로 남편은 테릴사위로 친정에서 같이 살았다고 한다.

환자의 성격은 의지가 굳고 말이 적은 편이며 정의감이 있어 보이며 사리를 잘 분별하며 이해가 깊고 교양이 있어 보인다. 태도는 언제나 침착한편이고 정서면은 감정이 풍부

하여 적은 일에도 곧잘 눈물을 많이 흘린다.

남편과는 남이 부러워 할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하며 Pregnancy를 한번도 하지 못해 자신이 늘 고민을 했었으나, 오히려 남편이 위트를 해주곤 했다한다. 그러나 불행이도 남편이 8년전에 Encephalitis에 걸려 13일만에 돌아가셨다고하며 친정도 부친이 돌아가신후부터 가산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타격과 고독에 지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그로인해 남은 가산을 탕진해버렸고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라고 한다.

### Medical and Health Background

먼저 이 환자의 Medical past history를 살펴보면 어릴때는 대단히 약했고 잔병을 잘 앓았으며 13세때 모친이 Typhoid를 앓고난 3개월후 본인도 Typhoid에 걸렸으나 병이 치유된후부터는 비교적 건강해졌다고 한다.

그후 18세의 여학생시대에 병명을 기억할수 없으나 Dr들의 말에 의하면 전염병이라고하며 열이 41°C까지 상승하고 살 희망이 없다고 했으며 죽기만 기다리던중 유명한 증국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진을 청한후 그가 제조해준 약을 먹고 난후 즉시 코와 입을 통해 다량의 피를 토했다고하며 얼마후 몸이 상

쾌해지면서 곧 일어날수 있었고 그 후 깨끗하게 낫다고 한다.

결혼 5년후 jaundice로 병원에서 약 일개월간의 치료와 집에서 보약을 쓰고 낫다고 한다.

처녀때는 Mens pain은 없었으며 **Hypermenorrhea**라고 생각 될만큼 양이 많았으며 결혼한 후부터 차차 Menstruation 때마다 Mens pain이 있었으며 결혼한 약 삼년후부터는 Mens pain이 점점 심해졌고 암갈색의 Bleeding으로서 많은 대단히 적어지고 사지통과 복통과 심한 Vomiting이었고 Indigestion으로 인하여 음식을 섭취할수 없고 조금만 먹어도 Vomiting이있어 이러한 Symptom에서 시달리고나면 Normal condition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보름간은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기때문에 Menstruation이 너무빨리 돌아오는것 같고 Menstruation이 돌아온다는 것이 죽기보다 괴롭고 무서웠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권유로 한약을 많이 써봤으나 낫지도않고 Pregnancy조차도 할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나중에 남편의 권유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찰받은 결과 나팔관염 때문에 pain이었고 pregnancy를 못하는 것이니 치료받으면 나올수 있고 임신도 할수있다고 하여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수개월간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 우선 pain이 없어졌기에 병이 나아가는줄만 알고 반가워서 돈은 달라는데로 마음껏 갖다주었다고하나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그 의사가 Addict였으며 이 pt에게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든 것이라고 하며 가족들이 눈치 챘을때는 이미 이 환자도 Addict가 되어있어 약 빼기가 어렵게 되었으나 가족들의 감시와 권유로 일단 끊었다고 하며 마약을 중지하니 다시 Mens pain이 일어나서 가족들래 마약을 다시 썼다고하며 본인도 이 마약을 끊으려고 가진 애를 써서 오랫동안 중지해 왔다고 한다.

그러는동안 마약에 인한 영향인지 Mens pain은 깨끗이 없어져서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8년전에 남편과 사별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다시 마약에 여러번 손을 내기시작하여 가재도 이력저력 탕진해버리고 친정식구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계실때(약 8년전) 무역하면서 얻어온 V. D. 로 인하여 본인에게도 Infection이되어 그당시 Aktisol라는 주사를 얼마동안 맞고 그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병은 나은줄 알고 있었으며 남편과 사별한후 다른 남자와는 한번도 접촉이 없었다고하나 현재 Syphilis를 가지고 있고 이 Syphilis의 전염경로가 어디서 왔는지 본인이 모른다고하니 우리도 의문에 그친다.

환자는 1961년도에 Narcotic addict으로 인하여 모 교도소에 8개월간 수감되어있을때 禁斷症(Abstinence syndrome)이 끝날혈마후 머리 전체에 큰 비듬같은 것이 일어났기에 영양실조라하며 Calcium 20cc를 매일 1 Amp씩 6일간 I.V. Injection 해주드라고하며 그때가 하절(7월)이었으며 두부에서 악취가 나기시작했기에 세탁비누로 머리를 감고나서 빗으니 모발이 많이 빠지며 한기가 많이들고 우측안면에 심한 Edema가 생기고 다음날은 우측의 Edema가 빠지고 그반대쪽의 안면에 Edema가 생겼으며 그 다음날은 Edema가 완전히 빠졌다고 하며 이것이 두부에 생기는 병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다시 귀를 앓기시작하며 두부에 Pus가 생기고 이마, 목, 팔, 가슴(유방), 둔부 하지의 손으로 내려와서 제이도 화상을 입은것같은 Symptom이 나타났으며(얼굴과 전박부위만 남겨두고) 다시 Edema가 생겼다고 한다.

그때 Treatment로서 Zink oxide ointment를 계속 발라서 약간의 효과를 봤다고 하며 Tar paster ointment를 Apply하여 크게 효과를 봤으나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oil penicilline을 7~8회를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경과한후 다시 심한 Edema가 안면에 있었고 심한 chillness, Nausea and Appetite loss 등으로 음식은 전혀 섭취할 수 없었

다고 한다. 두부에서는 Discharge 가 심해서 Eczema 같은 Symptom 이 나타났으므로 아보민 C를 1日 1회씩 1개월간 계속해서 주사 맞았으며 10일후부터는 Minophagen C와 Avil도 하루에 각 1 Amp씩 20일간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Symptom 이 점점 심해져서 전신에 Edema가 생기며 식사는 전연 할 수 없게 되고 오한이 점점 심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환자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들 말을 했다고 하며 교도소에서는 죽을것만 같다고해서 가족에게 전보를 썼으나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럴때는 마약이 잘 듣는다는 말이 돌아 교도소 소장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Morphine을 3일 간격으로 맞게되어 1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맞았으나 한번 맞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큼 큰효과를 보았으며 심한 Symptom은 소실되고 죽음을 면했다고하며 그곳 의무실에서는 Addiction의 Sequellae라고 진단이 내렸다고 한다.

그후 사회에서 전문의사를 초빙하여 진찰받은후 Omnamycin을 1일 1회씩 1주일간 I.M. Injection 했으며 Avil과 Minophgaen C도 같이 5일간 맞아 깨끗하게 치유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전신의 Skin이 깨끗하지 못하며 회미한 Scar같은 것이 남아있으며 비듬같은 것이 일어나며 Skin이 대단히 탄력이없

다. 이 환자는 현재의 Disease와 그때의 Disease가 너무나 흡사하여 이 년전에 앓았던 Disease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당시 많은 효과를 봤으며 병이 치유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완치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Symptom Treatment & Nursing Care

이 환자는 1962년 11월중부터 1963년 3월 22일까지 Heroin을 1日 1回 I.V. Injection 해온 Addict로서 3월 22일 본원에 입원가로중 5일간은 Abstinence syndrome 때문에 식사를 전혀 못했으며 Mydriasis, Tremor, Restlessness, Goose fles, Insomnia, Vomiting 등의 Symptom으로 고통이 심했었다.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Baralgin 1 Amp + Cordine 1 Amp I.M. Injection 했으며 Hyoling은 Abstinence syndrome에 먹는 약으로서 No. 1 No. 2 No. 3로 누별되어 있으며 Tid로 No. 1은 8 Am. No. 2 1 pm. No. 3은 7 pm의 2으로 매일 oral intake 시켰다.

환자는 최악한 상태에서 Appetite very poor 임으로 페에파타 5% Dextrose 100 cc Thiamin 1 Amp Compher 1 Amp씩 Injection 했다.

Abstinence syndrome이 끝난후

부러는 good Appetite, good condition 으로서 환자 자신이 기본상태였으나 마약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hate 하고 있었다. Abstinence syndrome 이 끝난 3일 후부터 귀가 가려우며 귀속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고 itching sensation 이 심했고 귀 주위에 발적이 생겼다.

3월 29일;

단순한 inflammation 인줄 알고 Chloromycetin 6cap Tid oral intake 했으며 귀는 간단한 Dressing 을 했다.

4월 6일;

계속 Treatment 들 했으나 별차도가 없으며 귀에서 pus 가 나오고 귀안에 Edema 가 생겨서 귀안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손도 붓대제 동통과 악취가 있었다.

Hostamycin 1 vial 매일 I.M. Injection 하며 Chloromycetin 은 여전히 medication 했다. 따라서 Furacin ointment 로 Dressing 했으며 병세는 줄었다 더했다 한다.

4월 15일;

귀에서 악취가 나든것이 귀 부근의 머리속으로 냄새가 퍼져나갔으며 두부에 부분적으로 Crust 가 생겼고 환자는 몹시 불안해 하였다.

환자에게는 정신적으로 꼭 나올수 있으며 좋은 약을 쓰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늘 위안을 주며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게했다.

Dr's order 는 Chloromycetin 과 Abcid 1 Amp 색으로 바꾸어졌다.

4월 21일;

본원에서 Addict 의 입원기간은 1개월간으로 되어있어 Discharge 날자가 왔으며 단순히 피부염으로 알았던것이 심상치가 않아 Discharge 후 Specialist 에게 진찰받아 치료받을 것을 권했으나 환자는 무의 무탁한자로서 나가서 치료받을 형편이 안되니 입원을 연기하여 치료해줄것을 간청해왔으므로 Dr 와 의논하여 좀더 경과를 보기로 했다.

악취는 점점 심해지며, 환자는 냄새와 itching 때문에 점점 미안한 마음과 불안에 싸여 눈물만 흘리고 있어 자주가서 위트를 해주었다.

머리는 Crust가 생긴자리에서 Pus 가 심하게 나오기 시작하며 악취 때문에 코를 들수가 없게되고 실내 전체가 냄새로 진동했다. 때로는 뒷머리와 옆머리의 머리칼이 빠져 콩알만큼씩 자리가 생기기도 했다.

Dr's order 에 의해서 Hystamin 1 Amp I.M. Injection. Teramycin 6Tab Tid oral intake 매일 했다.

5월 5일;

Cortisone 2cc I.M. Chloromycetin 6cap Tid oral order 가 바뀌어졌으며 Cambison ointment 로 귀와 두부를 Dressing 했더니 하루 사이에 경쾌되었고 귀에서는 Discharge 의 냄새가 없어졌고 환자 자신도 몹시 기뻐했었다.

3일후에는 외관상으로 볼때 귀는 완치된듯했으나 2~3일 지나면서 다시 귀 부위와 이마, 목에 발적이 생기고 머리에서 심한 Discharge가 생겼다.

환자에게 삭발하지 않고는 치료하기에 곤란한것을 오래전부터 설명하며 권해왔으나 삭발하기를 몹시 꺼려하고 거절함으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으나 겨우 달래며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인식을 시켜 환자 자신이 머리깎을것을 승락 하였다. 삭발한결과 두부전체가 pusstel로 덮여있었으며 심한곳은 끝집때기 또는 딸기 모양으로되어 근육속을 파고 든것처럼 보였으며 악취는 실내를 진동했다.

매일 2% Boric Acid solution으로 머리를 감겨서 딱지를 떼고 0.2% Gentian-Violet를 발라주며 정성드려서 갖인 노력을 해왔으나 별차도가 없으며 우선 pustulal를 없애기 위하여 Teramycin 250mg를 I.V. Injection 3일간 계속한 결과 다소의 효과를 봤으며 Injection medication은 종전대로 계속했다.

5월 16일;

병세는 다시 악화하여 날이갈수록 의문스러워지며 혹시나 V.D.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서 환자에게 질문하였으나 그런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

Dr와 의논하여 가트릭 의대에 의뢰하여 5월 28일 Blood test를 했

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Syphilis

V. D. R..L. = Weakly  
Wassermann test = + + +  
R. P. C. F. = + + +

확실한 진단이 나타났으므로 환자에게도 알려서 인식을 시키는 한편 Syphilis에 대한 본격적인 Treatment를 했다. Oil penicillin 600,000 u.를 매일 I.M. Injection. 했으며 Dressing도 여전히 계속했다.

그가 쓰는 대야 수건 기타 물건들은 구별하여 사용토록하며 손은 항상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주의시켰다.

### Syphilis 진단후 제1일;

이환자는 과거에 Oil Penicillin을 맞아본일이 있으며 Sensitivity test는 연속 주사하고 있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으나 2일이상 간격을 두고 주사하는 경우는 만일경우를 위하여 test하는것이 좋다고 하며 Penicillin shock 死는 1주간이상 간격을 두고 주사했을 경우 일어나는 일이 단연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Sensitivity test로 Oil Penicillin 1ml, 중 50,000 u.의 것을 0.02m. 10 l.u를 전박부위에 피내 주사하여 반응을 기다렸으나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o.p. 600,000 u. (2cc)를 매일 계속했다. 두부의 Dressing은 2% Gentian-Violet로 소독하며 Oil Penicillin을 Apply했다.

### Syphilis 진단후 제5일;

daily 로 O.P. 5일째 계속한 결과 두부는 약간 호전되었는듯하나 크게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안면에 이삼이 생기며 이마 전체가 발적하여 있으며 안면에 약간의 Edema 가 생겼고 안면 목에는 붉고 적은 斑點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환자는 Headache 가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때문에 오는 Symptom 인지 알 수 없었고 우리는 단순히 두부의 Inflammation 이 아주 심하고 Treatment 할때 소독하느라고 머리에 너무 자극이 되어서 그런것인줄만 알았었다.

Syphilis 진단후 제 6~7일째;

안면의 Edema 가 더 심해졌으며 눈을 뜰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심한 Headache, 口內異常感, 金屬的味覺, 全身脫加感, 발한, 오실등이 있으며 poor Appetite 로 food 는 전혀 취하지 않으려했다. 이러한 Symptom 이 나타남으로써 Penicillin side effects 임을 곧 알 수 있었으므로 O.p 를 중단하였다.

6월 5일;

Dr's order 로 Salvarsan No 3를 1주일 간격으로 20% Glucose 20cc 에 Solute 하여 I.v. Injection 했다.

Dressing 은 Hostamycin (Penicillin 40萬u. Streptomycin 0.5含有) 1Vial 에 Saline 6cc 로 Solute 하여 세척하며 0.2% Gentian Violet Solution 를 바르고 Cambison

ointment 도 발라주었다.

차차 딱지가 붙고 Discharge 는 없어졌으며 악취는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고 환자자신도 기분이 좋아졌다.

7월 13일;

두부가 늘달만큼 많이 호전되어가고 있고 자극을 주지않기위해 Dressing 은 격일치로하며 Boric sponge 로 살짝 닦아내며 그 다음 0.2% Gentian Violet Solution 만 발라주었다. 귀는 거의 나아가고 Cambison ointment 를 사용하였다.

Salvarsan 은 No 4로 Change 되어 1주일 간격으로 I.V. Injection 했다.

7월 26일;

병원사정에 의하여 환자를 부득이 퇴원시키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다시 한번 혈청검사를 카도릭 의과대학에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Syphilis

V. D. R. L. =Weakly

W. T. =Weakly

R. P. C. F. =+++

7월 29일;

이제는 귀도 거의 낫고 두부에서는 Discharge 가 전연 없어졌고 환자의 정신상태는 정상적이며 병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있었고 Medical staff 들의 친절과 성의에 대하여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었고 오늘로서 그는 정든 직원

들과 이별을 고했다.

### Health teaching

이 환자는 교양이 있어 쉽게 의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일수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Addict 이므로 Discharge 후 어려운 역경속에 처하게되면 다시 대부분 Addict 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그에게는 정신적인 두장이 필요하며 이 환자에게는 정신적인 위안이 무엇보다 요구되는줄 알고 특잇는대로 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복음도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재인식시키는 가운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않도록 격려하며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빌었다.

마약만 다시 손대지않게 된다면은 무슨일이 있어도 Syphilis 에 대한 치료볼 하는데 힘을 다할수 있는 사람같으니 멀지않아 Discharge 하게될 그에게 이 병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을 주입시킴으로 조금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Teaching 했다.

이병은 하루 이틀에 나올수 있는 병이 아니므로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받아야 할것이며 때로는 조금 치료받고도 증세가 일단 경쾌 또는 의관상으로는 알수없을 정도로 증상이 나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소홀이 여기는수가 있으며 한편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여의치

못하여 철저한 치료를 하기에 어려울 것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끝까지 인내로 치료받을것과 혈청검사를 적어도 1년에 2~3회씩은 하며 약 삼년간 계속하여 Negative 인 경우 완치되었다고 할수있고 뇌척수액에 배독반응도 동시에 Negative 로 나와야만 완치되었다고 할수있는 예비지식을 넣어주었다.

할수만 있으면 혈청검사를 최초의 6개월은 적어도 3회 그후 3개월마다 6회 검사하며 6개월후와 2년후는 뇌척수액을 검사하면 이상적이라는 것을 Teaching 하면서 test 를 무료로 할수있도록 교섭하여 소개했으며 항상 손소독을 잘할것과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소독과 관리에 관해 주의시켰다.

### Conclusion

불우하고 의지할곳없는 불쌍한 그에게는 Discharge 후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에 부딪치며는 다시 Addict 가될 우려성이 많으므로 그렇게된다면은 애써 오랫동안 진료에 세심한 노력과 주력해온 보람없이 수포에 돌아가고 말것이니 이 한사람만이라도 다시 재생의길을 걸을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을 해야하겠다는 심정에서 그의 갈곳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쫓아다녔다.

그러나 사회는 냉정했고 누구하나 그를 반겨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効力  正確

美容劑 + 強肝劑 = 씨·스라

皮膚美容

肝臟에!

500mg의 VC

**씨·스라**

200mg의 구루구루산

三一製藥



그를 지금 삭박하고 부스럼난채 그냥 퇴원시킨다면은 그는 갈곳없고 식모살이 조차도 할수없으니 그렇게도 오랫동안 수양과 치료에 힘써온 것이 그길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굳은 결심을 했다고는하나 결국 낙오자가 되며 모든일이 허사가되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모사회사업단체와 부녀보호소 모자원과 개인적으로 Social worker도 몇사람 만나서 사정을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최후로 시청부녀과에 찾아가서 사정했더니(공문서 한장 받고) 부녀보호소에 보내주실것을 약속이되었다.

이 환자의 퇴원수속을 마치고 환자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으나 막상 그곳에 가보니 퇴치못할 사정으로 이것도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다시 부녀과와 사회과를 방문하여 말씀을 드려봤으나 그것도 허사였다. 이렇게 되고보니 할수없이 그를 자유퇴원 시킬수밖에 없었고 그의 앞날이 순탄하기를 몇번이고 마음으로 빌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며 후생시설이 많이 생기고 또한 Medical social worker의 역할도 활발해져서 이런 불우한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뿐이다.